

포스트휴먼 시대 비교문학*

— 언어, 매체, 읽기

박 선 주**

[초 록]

이 논문은 ‘읽기’라는 방법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비교문학이라는 근대학문이 포스트휴먼 시대에 학문으로서의 적합성을 갖출 수 있는지를 점검해본다. 오늘날 언어는 매체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고 있으며 점점 더 인공적, 기계적인 성격을 갖추어가고 있다. 심지어는 최신 언어철학이론조차도 과학기술과의 상호적 관계를 통해 구성되고 있다. 인간과 기계, 문학언어와 매체언어, 과학과 인문학은 더 이상 경쟁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모방하고 흉내 내는, 긴밀하게 얽힌 관계이며, 문학성, 인간성, 보편성 등 비교문학의 핵심적인 개념들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거세게 도전받고 있다. 포스트휴먼 시대, 기계와 얽혀버린 언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면하여, 읽기의 행위를 먼저 자기성찰적으로 혹은 계보학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문학, 혹은 비교문학연구에서 지배적인 읽기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자세히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영어교육과 부교수

주제어: 매체, 인공언어, 비교문학, 포스트휴먼, 자세히 읽기

Media, Artificial Language, Comparative Literature, Posthuman, Close Reading

읽기'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이 방법론이 자동적으로 전제하는 '보편', '인간성', '문학성' 등의 개념이 갖는 정치적, 역사적, 언어적 한계와 편협성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읽기라는 행위가 수행하는 통치성에 함몰되지 않고 그 행위를 외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교문학은 매체화된 언어, 언어화된 매체, 즉 인공언어로 이루어진 텍스트들의 포스트휴먼적인 속성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담론장에서 공동체와 인간됨의 다른 형태들을 사유할 수 있을 것이다.

“헵타포드들에게 쓰기와 말하기는 문화적, 인지적으로 완전히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별개의 두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한 언어를 형태 변형시켜 사용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다. [...] 아마도 그들은 우리[인간]들이 사용하는 쓰기 형식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고 할 것이다. 소통을 위한 채널을 하나 더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걸 낭비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 테드 창, “당신 인생의 이야기”¹⁾

1.

SF 작가 테드 창(Ted Chiang)은 단편 “당신 인생의 이야기(Stories of Your Life)”에서 지구에 찾아온 “헵타포드”라는 외계인의 언어를 소개한다. 그들에게, 말하는 언어(헵타포드A)와 쓰는 언어(헵타포드B)는 완전

1) Ted Chiang (2004), “Stories of Your Life”, Pan Macmillan, p. 130. 원문은 다음과 같다. “For the heptapods, writing and speech may play such different cultural or cognitive roles that using separate languages make more sense than using different forms of the same one. [...] Maybe they think our form of writing is redundant, like we’re wasting a second communication channel.” 번역은 필자의 것이다.

히 다른 별개의 언어이다. 헵타포드A는 ‘말’이라는 것이 발화되는 물리적인 구조상 단어와 단어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헵타포드B는 ‘글’이므로 그런 한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의미소는 “한 번에 하나씩 펼쳐지지 않으며 대신 의미로 가득한 페이지 하나가 한 번에 주어진다.” 이들에게는, 글과 말이란 어차피 전혀 다른 매체를 통해 구현되므로 그 매체의 성격과 구조에 맞게 아예 각각 다른 언어를 채택하여 소통과 사유의 양과 질을 최대한 확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이 외계인들의 언어관은 지구의 언어·문학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문제를 던져준다. 많은 문학연구가 언어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매체성에 대해 둔감한 상태로 언어정체성의 단일성과 그 내부의 동질성을 (기계적으로) 전제해 왔다. 특히 비교문학 연구는 언어적 차이와 다름에 주목한다는 나름의 모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가·문화적 경계선에만 주목해왔다. 헵타포드들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이는 언어적 차이가 담보하는 많은 가능성을 의미 없이 “낭비”하는 이해 못 할 행위이다. 사실 논리적으로 헵타포드의 지적이 맞는 것 같다. 어쩌면 우리 지구인들은 언어적 차이에 대해 적절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충분히 합리적인 언어적 실천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언어적 차이를 논하기 위해 마련된 장(비교문학?)에서조차 우리는 그 차이에 대해 가장 ‘덜’ 말하면서 소통의 다양한 가능성을 스스로 닫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논문은 비교문학이라는 학제가 지식과 제도로서 갖는 한계와 가능성을 포스트휴먼이라는 현재적 맥락 속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오늘날 언어는 매체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질적인 요소들을 생성해내고 있으며 이는 언어와 텍스트, 더 나아가 문학성이라는 개념의 안팎에서 복잡하고 동적이며 기계적인 변화들을 구성하고 있다. 문학연구 특히 비교문학연구는 이제 언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빠른 변화와 차이들의 의미를 포착하고 읽어내어야 한다. 비교문학이야말로 언어의 차이, 또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변화들을 가장 민감하게 포착하고 이를 역동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언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질성들을 인식하는 방식의 변화는 읽기·해석의 방식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이는 문학연구가 ‘읽기’라는 행위의 의미, 즉 학문 자체의 의미를 메타적으로 재점검하게 하고 더 나아가 포스트휴먼 시대 문학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유를 촉발할 것이다.

2.

헵타포드가 지적하는 지구인들의 언어적 “비합리성”(문학연구의 언어적 차이에 대한 둔감성?)은 사실 비교문학이라는 학문의 태생적 한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비교문학은 ‘차이’를 논하는 학문이라고 흔히 이해되고 있지만 사실상 그 학문적 기원은 ‘차이’에 대한 통제·억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비교문학의 기원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괴테의 “세계문학(Weltliteratur)”에서 출발하며 여기에 담긴 보편주의적 이상이 그 기본정신으로 설정된다. 물론 많은 비평가들이 괴테의 ‘보편’ 개념이 내포하는 서구중심주의와 그가 말하는 ‘세계’의 편협성을 신랄히 비판해왔지만, 이 개념이 촉발한 국가·언어·문화 간 상호교류와 경쟁, 확장성이라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비교문학의 출발점으로 자리 잡은 보편주의적 이상에서 식민주의적인 성격을 보다 부각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외교관이자 작가였던 괴테의 “세계문학”보다는 동인도주식회사의 수장이자 비교언어학자였던 윌리엄 존스(William Jones)의 작업이 비교문학의 기원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존스가 인도에서 수행했던 동방언어와 텍스트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보학적 분류작업과 비교연구는 단순히 선구적 비교언어학연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인도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상의 혼종적 언어를 ‘아라비아어’, ‘페르시아어’ 등 몇 가지 정제

성으로 고정시키고 그들 간의 위계관계를 규정한 작업이며 궁극적으로는 영국의 인도 통치라는 정치적 규율을 언어적 차원에서 실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존스의 비교언어학연구는 당대 유럽 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고 동양 언어와 문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촉발하였으며, 비교문학이라는 학문의 인식론과 방법론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비교문학의 기원에는 식민통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며 ‘비교’의 인식론과 방법론에는 정복의 논리가 내재하고 있음을 보다 날카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²⁾

비교문학은 차이를 논의하고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언어와 텍스트에 대한 서구적 식민통치를 유지해왔다. 차이를 논하되 기준이 되는 ‘보편’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식인 것이다. 아마도 지구의 학자들은 헵타포드에게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글과 말이 물론 매체 상 다르지만 그 차이가 모국어와 외국어를 가르치는 차이보다 더 크다면 되겠냐고. 일단 모국어가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하고 난 후 그 안에서 매체적 차이를 두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이다. 지구에서 차이는 철저히 위계화되어 있다. 매체의 차이보다는 국가·문화적 차이가, 그 보다는 헵타포드 같은 존재들과의 종으로서의 차이가 더 우선시된다. 위계의 끝에는 존재론적이면서 그와 동시에 정치적인 ‘인간·인간성’이라는 모호한 층위가 자리하고 있다. (물론 이 위계에서 국가·문화 층위와 인간·인간성 층위 사이에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차이의 위계화는 실제로 근대학문의 내부에 구조화되어 있는 것인데, 비교문학의 경우 차이를 전면적으로 다룬다는 사실 때문에 유난

2) 윌리엄 존스의 비교언어학과 비교문학의 성립에 대해서는 Ahmed, Bhattacharya 참조. 근본적으로 문학이라는 근대지식이 ‘보편’이라는 서구적 이상을 바탕으로 국어·민족·문화·문학 사이의 매끄러운 연결을 도모하는 국민국가체제의 통치성의 일부로서 발생하고 유지되었으며 이런 점에서 비교문학을 굳이 문학과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박선주(2018) 「비교문학연구방법론에 대한 소고」 참조.

히 이 위계가 노골화되고 강화된다. 다른 학제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혹은 은근히 숨기기도 하는) 인간성-휴머니즘이 여기서 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보편적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 비교 문학이 인문학으로서 더 이상 유효한가라는 회의감을 일으키는 원인이 기도 하다. 80년대 이후 많은 연구가 인간성-휴머니즘의 근대적 통치에 도전하여 ‘포스트휴먼’의 가능성을 꾸준히 탐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편성=인간성=문학성 사이의 등치관계를 해체하고 ‘인간성’이라고 정의된 범주 밖에 놓여진 많은 경험, 기억, 정체성, 목소리들을 새롭게 사유하고 있다. 비교문학이 기준으로서의 ‘보편-인간성’을 폐기하고 그 기준 위에 위계적으로 정렬된 층위 밖에서 차이와 다름을 논의할 수 있는 방법론을 다시 사유하지 않는다면, 포스트휴먼 시대 학문으로서의 적절성을 잃을 수도 있다. 학문 안에 심어진 휴머니즘의 식민적·위계적 보편성을 내부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매체에 대한 인식은 언어와 문학텍스트 내부에서 일어나는 차이와 변화를 보다 날카롭고 세밀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해준다. 이는 또한 비교문학 내 기존 인식론과 방법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포스트휴먼’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기도 한다. 우리는 흔히 언어는 유기적, 자연적, 철학적이고 매체는 인공적, 기계적, 도구적이라는 (지극히 휴머니스트적인) 구분을 하곤 하는데, 그런 기준에서 보았을 때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 언어와 매체는 서로의 내부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이들의 상호작용은 예측하기 힘든 양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 관계 속에 서로를 변화시킨다. 이미 상당부분 언어는 매체화되었고 매체는 언어화되었다. 하이데거가 말한 대로 인간은 말하는 존재라면, 이제 그 인간-됨은 매체화된 (혹은 기계화된?) 언어, 언어화된 매체에 의해 많은 부분 구성되고 있다. 언어가 곧 존재라고 생각하는 휴머니스트에게 매체 혹은 매체화된 언어는 자아 내부에 이질적인 인공물이 있다는 불쾌한 이질감을 줄 수도 있다. 어쩌면 그 부분

이 의수나 의족처럼 거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인공언어(?)의 이물감을 생생히 느끼면서도 여전히 인간은 말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

3.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사이보그(cyborg)”라는 용어로 인간의 기계성을 선언하고 더 나아가 인간/기계의 혼종성 위에서 ‘인간’이라는 범주를 재설정하면서 인문학에서 포스트휴먼이라는 논의의 장을 열어젖혔다. 물적인 층위에서 보았을 때 인간은 이미 기계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리디아 류(Lydia Liu)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러웨이가 제시하는 ‘사이보그’, 즉 인간/기계라는 혼종적 존재의 역사적 구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적 차원을 넘어 언어와 무의식의 차원까지 파고든다. 다시 말해 리디아 류는 인간의 ‘기계성’을 언어와 인식, 무의식과 욕망이라는 더 확장된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류는 근대 이후 인간과 기계는 서로가 서로를 모방하면서 진화해왔다고 보며, 인간과 기계간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호모방의 피드백 루프 안에서 디지털 매체의 탄생과 의미를 조망한다. 그녀는 특히 디지털 매체의 핵심기술인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게임이론(Game Theory) 등이 고안한 “정보”와 “통신” 개념이 인간의 언어를 최대한 모방(simulate)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고 이 모방이 낳은 기술적 결과가 다시 언어와 무의식에 대한 재개념화를 촉발하게 되는 쌍방향적 상호구성 과정에 주목한다. 그녀가 제안하는 “프로이드적 로봇(The Freudian Robot)”은 바로 사이버네틱스와 인간 무의식이 복잡하게 얽히는 역사·사회·문화·언어적 과정 중에 등장한 혼종적 존재(인간/기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³⁾

리디아 류에 따르면, 1940-50년대 경 위버, 새넌, 폰 노이먼 등 미국의 대표적인 사이버네틱스 연구자들은 언어가 발생하는 장소를 인간의 무의식이라고 설정하고 무의식의 작동 메카니즘을 정밀하게 모방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 디지털 매체 — 을 고안한다. 이들은 무의식을 “내면이라는 기계(psychic machine)”로 파악하였고 이 “기계”에서 언어가 발화되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무작위(random)”이고 “맹목적(blind)”이며 “분열적(schizophrenic)”이라고 보았다. 무의식이라는 “기계”는 근본적으로 의미, 무의미를 구분하지 않으며 무작위로 또 자동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네틱스 연구자들에게 ‘정보’란 ‘의미’, 혹은 ‘내용’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정보’란 그저 불확실성을 내포한 확률적인 개념일 뿐이며 ‘정보’의 이런 “무작위성”과 “분열”을 시스템적으로 다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확률론과 “통계학적 사유(a statistical thinking)”이다. 이렇게 구상된 정보이론·사이버네틱스는 당대 언어이론과 철학에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 소쉬르 등 프랑스 구조주의자들의 언어철학은 분명 사이버네틱스가 파악한 바대로의 커뮤니케이션의 성격 — 즉 근본적으로 자동적, 무작위적, 분열적이며 ‘의미’나 ‘내용’과는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 과 아주 가까이 닿아있다. 즉 “프로이드적 로봇”은 과학기술과 인문학, 소통 기술과 무의식적 발화, 자동화와 충동 등의 상호적 피드백 루프 안에서 생겨난 기계화된 인간, 혹은 인간화된 기계이며 이 혼종적 존재의 언어/정보는 강박적이면서도 자동적인 반복, 무작위적이고 맹목적인 자기분열의 성격을 띤다.⁴⁾

레이 초우(Rey Chow) 역시 20세기 언어철학과 과학기술, 인문학과 과

3) Haraway (1991), *Simians, Cyborg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Lydia Liu (2010), *The Freudian Robot* 참조.

4) “프로이드적 로봇”은 또한 미국의 게임이론, 정보이론, 사이버네틱스가 대서양을 건너 프랑스 철학과 언어학으로의 탈학제적 이관을 보여주는 글로벌 번역(global translation)의 예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Liu, *The Freudian Robot*, pp. 175-78.

학, 언어와 매체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상호 개입을 통해 서로를 변형하는 역사적 과정에 주목한다. 초우는 포스트구조주의 언어철학자들의 글 안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과학적’ 언어, 상징만으로 성립되는 즉각적 논리에 대한 은밀한 욕망을 포착한다. 소쉬르, 라캉, 레비스트로스, 바르트, 혹은 미국 신비평의 논의에는 도표, 선, 숫자, 도형 등의 그래픽적인 요소들이 유난히도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이는 오해와 오역을 수반하기 마련인 언어와는 다른, 즉각적인 전달과 이해, 객관적인 제시, 감각적 쾌감이라는 시각매체적 효과를 의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초우는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많은 경우 이 그래픽적 요소들은 빠르고 손쉬운 이해를 도와주는커녕 “이해를 돕기 위해 쓰인 것이 오히려 그 설명의 대상보다 더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을 야기하며 그 자체가 설명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⁵⁾ 즉 시각매체들은 실증성과 보편성을 지향하지만 동시에 암호적이고 신비적이며, 그 시각적 형태는 거꾸로 언어의 도움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이기도 하다. 초우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포스트모던 시대 매체와 언어의 상호 침투와 공존의 양상을 보여준다. 언어는 의미화와 소통의 과정에서 늘 복잡성과 예측불가능성이라는 위험을 항상 껴안고 있으며 끊임없이 설명과 해석을 요구한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각종 그래픽 등 시각매체는 언어의 내재적 한계를 뛰어넘는 보편적 소통을 내세우며 야심차게 등장한다. 그러나 언어를 대체하겠다는 욕망에도 불구하고, 시각매체는 언어와 섞이는 과정 중에 실제로 언어와 비슷한 그 무엇이 되어버린다. 언어 속에 섞여있는 시각매체는 “언어 없이 존재하기를 꿈꾸는 언어, 글쓰기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글쓰기” — 즉 언어에 대한 일종의 시뮬레이션이 된다.⁶⁾

리디아 류와 레이 초의 논의는 언어와 매체의 관계를 이해하고 사유하는 데 유용한 틀을 마련해준다. 전통적으로 언어와 매체는 별개의 것으

5) Rey Chow (2011), “On the Graphic in Postmodern Theoretical Writing,” p. 377.

6) Rey Chow, p. 378.

로 상정되었고 이들의 관계는 흔히 경쟁관계로 파악되었다. 문학은 영화, 드라마, 게임, 페이스북, 트위터 등 새로이 등장하는 대중매체와 끊임없이 비교되었고 그 유효성과 미래는 이러한 매체들의 영향력에 대비하여 (비판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언어와 매체 간 경쟁이라는 구도는 언어의 매체화, 매체의 언어화라는 상호구성적인 복잡성을 파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실제로 최근 소설 서사는 게임 등의 매체의 개입에 크게 영향 받아 변형되고 있다. 넷플릭스 등 새로운 플랫폼 위에서 등장하는 텔레비전과 드라마는 소설읽기를 시청 모델로 삼아 제작된다.⁷⁾ 또 이 변화와 변형 과정에는 언어와 매체의 상호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담론, 자본, 국가, 욕망 등 다양한 요소들이 각각의 층위에서 개입하고 관여하기 때문이다. 사실 “프로이드적 로봇” 역시 이런 다층적인 개입들에 의해 펼쳐지는 개념이다. 언어와 매체, 철학과 기술, 사이버네틱스와 무의식의 만남에는 세계대전과 냉전이라는 맥락이 있으며 정치·군사적 목적이 긴밀하게 개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또한, 인간의 무의식이란 누구나 어디에서나 똑같이 작동한다는 보편주의적 전제가 개입하며, 이 무의

7) 아즈마 히로끼의 『게임적 리얼리즘의 탄생』은 라노벨 등의 장르문학과 오타쿠 문화 분석을 통해 게임이 소설 안으로 침투하는 양상과 그것이 소설서사 자체에 일으키는 본격적인 변화를 논의한다. 게임 등 새로이 등장한 매체가 인물과 플롯을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방식은 현대소설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렇게 구성된 소설은 더 이상 19세기적 “자연주의적 욕망”을 가진 리얼리즘적 서사로는 포착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제작, 방영되는 드라마 시리즈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경우 소설을 모델로 한 드라마 제작의 예를 보여준다. 넷플릭스는 정해진 날짜에 드라마의 한 시즌 전체를 한꺼번에 배포하는데, 이는 드라마의 시청모델을 근본적으로 소설읽기의 모델에 맞추고(모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점점 더 많은 시청자들이 방송사에서 정한 일정표 등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시청(탐독?)할 수 있는 자유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런 시청자들은 흔히 “수준 있는 드라마(quality drama)”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여러 편을 한꺼번에 몰아서 보기, 즉 “빈지 워칭(binge watching)”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12편 정도의 드라마를 한꺼번에 시청하면서 이 연속적인 에피소드를 하나의 작품으로 보고 그 통일성과 작품성에 주목한다는 것은 시청자들이 드라마시청을 소설읽기와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식을 조종·통제하기 위해 ‘영어’ 알파벳을 보편 상징 — 상형기호(ideogram) — 으로 사용하는 언어제국주의가 개입한다. 포스트모더니즘 비평이 주장하는 기의(signifier)들의 자유로운 유희(free play)에는 다양한 전략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임(game)이론이 개입해있다.⁸⁾

언어와 매체의 만남과 이 만남에 수반되는 온갖 종류의 개입들이 복합적으로 매개하고 창출하는 인식적 효과는 가히 SF적이다. ‘소통’이라는 인류의 영원한 꿈과 물적이고 기술적인 노력 간의 복잡한 결합관계는 그 자체로 SF의 기본 구조이기도 하다. 기계화된 인간 “싸이보그”나 죽음충동을 탑재한 “프로이드적 로봇”은 테드 창어의 “헵타포드”와 마찬가지로 판타지라는 공간을 열어주며 (역설적이게도) 가장 환상적인 상상의 공간 안에서 언어, 소통, 매체, 인간-됨, 휴머니즘 등의 “합리성”을 논의하고 측정하며 재사유하게 한다. 어쩌면 이 개념들 각각이 이미 내부에 지닌 많은 모순과 복잡성, 혼란들을 고려하면, 이들이 “합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공적 공간(public space)은 결국 SF적 공간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⁹⁾ 언어와 매체가 그 자체의 모순과 복잡성을 가진 채로

8) 리디아 류는 싸이버네틱스가 대서양을 건너 프랑스 언어철학으로 건너가면서 그 번역의 과정에서 “게임(game)”이 “free play(유희)”로 변형되었음에 주목한다. “게임이론”에서의 “게임”이 갖는 지극히 어두운 뉘앙스들 — 제로섬 게임, 전략, 위협 등 — 이 “자유로운 놀이”라는 번역에서는 모두 제거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글로벌한 번역과정을 찬찬히 짚어본다면, 실제로 가장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언어철학조차도 그 근본적인 구성과정에서 핵무기 개발에 연관된 제국적, 군사적, 정복적인 목적이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p. 176.

9) ‘언어’, ‘매체’, ‘소통’이 갖는 의미망은 역사상 일관되거나 안정적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모순과 혼란으로 가득하다. 영국의 철학자 로크(Locke)는 언어가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매체여서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리고 왜곡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로크에게 ‘매체’란 소통의 불가능성을 나타내는 일종의 비유(metaphor)이다. 반면 윌킨스(Wilkins)에게 ‘매체’란 기본적으로 ‘글(writing)’이며 ‘말’을 매개하는 물적 기술이다. ‘매체’란 언어에 대한 매체로(로크) 혹은 말에 대한 매체(윌킨스)로, 소통이라는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에 대한 비유로(로크) 혹은

모방, 경쟁, 침투 등 다양한 관계를 통해 공존하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양상은, 결국 과학기술과 판타지를 한데 아우르는 더 넓은 사유와 상상의 공간에서 관찰되고 탐색되며 논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쇄매체가 국민국가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하였다면, 언어/매체라는 혼종적 인공언어는 아마도 SF적인 담론공간에서 그 다음에 나타날 공동체에 대한 “상상”을 이어가지 않을까?

4.

그러면 언어와 매체의 상호구성적인 모방과 진화, 그 변화무쌍한 혼종성을 어떻게 읽고 분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하나의 언어가 내부적으로 동질하거나 균일하지 않으며 기계적, 물적인 요소들, 혹은 무의식, 욕망, 사회적 담론 등이 끊임없이 개입하여 무수한 차이와 다름을 생성해낸다면, 비교문학연구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가? 포스트휴먼 시대 비교문학이 학문으로서의 위기에 당면해있다면, 이는 ‘인간성-휴머니즘’이라는 낡은 이데올로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읽기’의 위기이기도 하다. 언어는 매체의 홍수 속에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우리는 그 언어를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최근 ‘읽기’에 대한 비평적·방법론적 관심이 급증하는 것도 현시대 언어와 세계에 대한 적절한 해석방법론

물적인 기술로(윌킨스) 각각 다르게 이해되었으며 이런 차이가 불러일으키는 철학적 혼란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매체’의 정의 자체도 모순으로 가득하다. 매체는 정보를 전달하는 물적 기술이기도 하지만 종종 죽은 자와 산 자를 이어주는 영매(medium)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언어’가 소통을 위한 것이냐 소통의 단절을 위한 것이냐는 서양언어철학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해묵은 논의이다. ‘매체’라는 용어가 역사적으로 진화해온 계보를 되짚어 정리해주는 글로 John Guillory (2010), “Genesis of the Media Concept” 참조.

— 연구방법론 — 에 대한 학계의 고민을 반영한다.¹⁰⁾

이런 맥락에서 테드 창이 상상하는 ‘읽기’의 양상은 흥미롭다. 언어학자인 화자는 헵타포드와의 인터뷰와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헵타포드 B”라는 낱선 글의 법칙과 원리를 깨쳐간다. 그 언어는 한 글자씩, 혹은 한 문장씩 발화되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펼쳐지지 않는다. 문장, 혹은 문단은 동시에 한꺼번에 펼쳐진다. 헵타포드들은 써야 할 것의 전체를, 쓰는 행위 이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화자는 이 언어를 읽고 이해하고 실제로 연습하면서, 자신이 이전까지 생각하고 기억해 온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남을 경험한다. 생각과 기억은 더 이상 과거에서 현재라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헵타포드B”와 마찬가지로 기억은 한꺼번에 그 전체가 구현된다. 애인이 사랑을 말하는 순간, 그와 함께 할 삶, 태어날 아이, 그 아이의 인생, 그 전체가 그와 손을 잡기도 전에 이미 기억 속에 짝 펼쳐지는 것이다.

물론, 읽기의 방식이 달라지면 사유하는 방식이 변한다는 이 SF의 상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상상을 학문적으로 적용하기란 불가능하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가 현실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풀리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르게 읽기에 대한 시도는 분명 인식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르게 읽기를 시도해야 할 것이지만, 문학이라는 제도 안에 ‘다름’이 이미 포섭되고 구조화된 상황에서 선불리 다르게 읽기를 제안하기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설사 상당히 유효한 ‘다른 읽기’의 종류가 제안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복잡한 언어적 현실에서 어떤 인식적 변화를 가져올지, 혹은 가져오기는 할지 등을 예측하는 것은 학문적 영역보다는 SF소설의 영역에 더 적합한 작업이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시점에서 비교문학연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읽기’

10) 여기서 ‘읽기’란 전통적인 문자매체를 해독하는 행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매체 뿐 아니라 영상, 청각, 촉각 등 오늘날 등장하는 많은 다양한 매체들을 해석하고 서사화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학문적 행위 전체를 의미한다.

라는 행위를 잠시 멈추고 ‘읽기’의 역사를 계보학적으로 되짚어보면서 그 행위의 제도적·역사적·사회적 의미를 자기성찰적으로 재점검해 보는 작업일 것이다.¹¹⁾

비교문학 뿐 아니라 문학연구 일반에서 ‘읽기’란 사실상 ‘자세히 읽기(close reading)’로 수렴된다. ‘자세히 읽기’는 신비평 이후 문학연구의 방법론으로 지배적이고 독점적인 위치를 점해왔으며 다양한 비평적 읽기에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20세기 전반 신비평 이론가들이 제시했던 ‘자세히 읽기’는, 문학작품이 어떤 외부적 맥락에 영향 받지 않고 그 자체로 설 수 있는 자족적인 언어구성체임을 전제하며, 꼼꼼하고 자세한 언어적 분석을 통해 그 자족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단어와 플롯, 상징과 캐릭터 등 각각의 구성요소들의 맺고 있는 유기적이고 불가분의 관

11) 실제로 “자세히 읽기”의 이데올로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많은 비평가들이 흥미롭고 유효한 ‘읽기’ 방식을 제안해왔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웨이 치 디목(Wai Chee Dimock)의 “지구적 읽기(global reading)”를 들 수 있다. 디목은 작품의 지구적 이동과 궤적, 흔적을 추적하면서 “자세히 읽기”가 전제하는 유기적 언어공동체를 해체한다. Dimock (2008), *Through Other Continents* 참조. 리디아 류가 제안하는 “글로벌 번역(global translation)”도 크게 보아 이런 “지구적 읽기”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Liu (1995), *Translingual Practice* 참조.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Clifford Geertz)가 제안한 “두껍게 묘사하기”는 또 다른 의미에서 ‘다른 읽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쓰기와 읽기라는 행위에 개입하는 수많은 층위들의 존재를 지적하였으며 이 층위들이 만들어내는 ‘두께’에 주목하는 읽기 혹은 쓰기의 기술을 강조하였다. Geertz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참조. 그러나 이러한 흥미로운 읽기들 중 하나를 도그마로, 혹은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 글이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문학’은 근대적 담론과 지식의 체제(regime)로서 이러한 ‘다른 읽기’들을 분명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 왔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다름’을 유포하고 장려하기도 한다, 따라서 ‘다름’ 그 자체를 지지하는 것은 근대적 통치성 안으로 다시 포섭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읽기’라는 (통치적) 행위 그 자체를 자기성찰적으로 (푸코적 의미에서 계보학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근대문학 — 혹은 비교문학 — 의 작동기제로서 ‘자세히 읽기’가 성립되어 온 기원과 과정을 역사적으로 짚어보는 것이야말로, ‘읽기’라는 혹은 ‘문학’이라는 행위에 함몰되거나 포섭되지 않으면서 ‘읽기’를 바라보는 외부적 시선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계를 밝히며 이 요소들이 텍스트 전체로서 의미를 구현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20세기 후반 이후 문학연구가 전문화·분화되고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함에 따라, ‘자세히 읽기’는 구체적인 해석이나 분석의 방법론으로서의 유효성은 상당부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읽기 방법론은 ‘문학’이라는 제도 안에 일종의 인식론적이고 윤리적인 입장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문학이 차이보다 보편을 지향하는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자세히 읽기’의 문학사적 의미는 무엇보다, 특수에서 보편으로의 이행을 문학연구의 경로로 자동설정하였다는 점이다. 작은 시 한편에서 우주적 의미를 읽어내는 신비평의 읽기는 그 놀라운 논리적 비약에도 불구하고 경이로움을 동반하는 지적 만족감을 주었으며 이후 텍스트분석과 해석이 따라야 할 모범적 예가 되었다. 신비평의 시대가 지난 후에도 언어가 그 내부에 확보하고 있는 유기적 통일성, 텍스트가 그 존재 자체만으로 확보하는 자족성이라는 개념은 문학을 ‘문학’이라는 독립된 지식, 제도로써 유지하는 힘으로서 강력하게 기능하였다. 언어가 그 자체로 담보하는 유기적 통일성은 개인-언어-국가·문화정체성 간의 일체감을 든든히 떠받쳤고, 텍스트에 대한 원어민이 갖는 독점적 특권을 확보하였으며, 또 한편 포스트모던 비평의 물결과 함께 밀려온 수많은 해체의 요구 속에도 곳곳이 살아남아 다문화시대 정체성 정치의 언어적 기반이 되었다.¹²⁾ 신비평은 또한 ‘자세히 읽기’에 과학성을 부여하여 문학연구 내부에 근대학문으로서 권위를 심어주고자 하였다. ‘자세히 읽기’는 많은 경우 구체적인 읽기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연구자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지칭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문학이 학문으로서 갖는 보편성, 객관성, 과학성을 강조한다. 대표적인 신비평 이론가 중 한 사람인 리처

12) 이런 의미에서 Bruno Latour는 “자세히 읽기”가 비평정신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식의 읽기는 정체성 정치를 계속 부추긴다는 것이다. Latour (2004), “Why Has Critique Run Out of Steam?” p. 225.

즈(I. A. Richards)의 행보는 특히 이런 점을 잘 보여준다. 그는 문학연구를 과학성을 갖춘 근대학문으로 승격시키고자 하였으며 신비평을 통해 당시 유행하던 스키너(B. F. Skinner)의 행동주의 심리학을 문학방법론에 이식하였다. 심리학이 경험적 연구를 접목시켜 엄청난 과학적 권위를 획득했듯, 문학연구에도 형식주의를 접목하여 그와 같은 효과를 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자세히 읽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깊이 받았고 해석의 방식에 있어서도, 자동반사 등 생리학적인 개념을 차용하여 언어/시를 분석가능한 행동과 유사한 것으로 개념화한다.¹³⁾ 리처즈의 또 다른 업적은 1920년대 “기본영어(Basic English)”라는 프로젝트인데, 이는 영어를 단어 수와 문법을 아주 단순화한 형태로 변형해 지구 어디서나 글로벌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편언어로 만드는 작업이었다. 그에게 과학화는 보편화의 또 다른 이름이었고, 영어를 세계공용어로 보편화하였던 원칙과 원리 그대로 문학을 학문으로서 보편화하고자 하였다.

또 ‘자세히 읽기’는 문학연구에서 ‘징후적 읽기(symptomatic reading)’라는 지극히 서구적인 해석적 전통을, 유일하고 보편적인 문학방법론으로 고착화한다. 텍스트를 ‘자세히’ 보는 이유는 텍스트 ‘밑’에 숨겨진, 혹은 텍스트에는 ‘부재하는’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함이며, 드러난 텍스트는 이 숨겨진 의미의 희미한 ‘징후’일 뿐이라는 것이 ‘징후적 읽기’의 전제이다. 스티븐 베스트(Stephen Best)는 ‘징후적 읽기(symptomatic reading)’의 양상을 서양의 해석학 전통 안에서 정리해준다. 서구에는 성 어거스틴(St. Augustine)부터 내려오는 신학전통, 중세의 알레고리, 19세기 막시즘, 20세기 초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으로 이어지는 길고 오랜 ‘징후적 읽기’라는 해석적 전통이 있으며 ‘자세히 읽기’는 이 전통을 20세기 후반 이후로 이어나가는 후계자라는 것이다. 베스트는 서구 전통에

13) Joshua Gang (2011), “Behaviorism and the Beginning of Close Reading” 참조.

서 이런 종류의 ‘읽기’가 비평가에게 엄청난 해석적 권위와 심지어 영웅적인 지위를 부여해왔음을 지적한다. 각각의 텍스트 저 아래에는 이데올로기, 무의식, 혹은 거대한 메타담론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비평가는 텍스트들과 씨름하여 가려진 커튼을 힘껏 열어젖히고 그 아래 펼쳐진 더 큰 의미와 더 큰 구조를 찾아내는 특별하고 영웅적인 존재로 제시되어 왔다는 것이다.¹⁴⁾

매튜 가렛(Matthew Garrett)은 ‘자세히 읽기’를 ‘부르조아’라는 계급적 자아 구성의 맥락에서 바라보면서 교양으로서의 독서라는 개념에 함의된 계급적 불평등과 착취의 양상을 포착한다. 17-8세기 유럽 피카레스크 소설에는 많은 “피카로(picaro)”들이 등장하여 작품 안에서 도망치고 부랑하고 모험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계급적으로 프롤레타리아에 속하는 이들이다. 반면 편안한 집안에서 책을 읽는 부르조아 독자는 독서를 통해 이 피카로들을 자신의 내면으로 투사한다. 피카로들이 굶주리고 궁지에 몰리고 위협에 처한 후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포식과 안전을 획득하듯, 독자는 피카로들의 모험을 소비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환원하여 “먹어 치운다.” 피카로들이 느끼는 굶주림 후 포만감은 독자가 느끼는 독서 후 만족감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카로들 중 소매치기 여성이 절도의 대상을 물색하며 지갑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주시”는 독자의 ‘자세히 읽기’로 내면화된다.¹⁵⁾ 소매치기 여성이 지갑 절도에 고도로 집중하여 그 행위에 성공한 후 느끼는 안도와 쾌락은 독자가 ‘자세히 읽기’가 끝났을 때 느끼는 지적 쾌락과 동일하다. 즉 역사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부르조아 독자들의 독서법, 그것을 바탕으로 한 교양교육의 형식과 구조 그 자체에는 근본적으로 계급적 불평등이 새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14) Stephen Best and Sharon Marcus (2009), “Surface Reading” 참조.

15) Garrett은 이에 대한 예로 Defoe의 *Moll Flanders*를 들고 있다. Matthew Garrett (2015), “Subterranean Gratification” 참조.

이처럼 ‘읽기’를 계보학적으로 읽어보면서(?) ‘자세히 읽기’의 의미를 다각도로 점검해보면, 이 방법론이 지향하는 ‘보편’의 의미는 명확해진다. 이는 언어를 순일한 것으로, 텍스트를 유기적 통일체로, 비평가를 영웅으로, 독자를 교양인으로 전제하면서, 문학과 인간성의 보편적인 가치를 설파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 ‘보편성’은 논리적 비약이고 과학으로 둔갑한 제국적 욕망이며 서구 서사전통에 대한 나르시시즘이고 계급적 불평등과 착취이다.

역사적, 사회적, 담론적 한계와 그 편협성이 너무도 명확한 ‘자세히 읽기’로는 언어와 매체가 뒤섞인 오늘날의 혼종적이고 기계적인 언어, 인공언어적 구성물(그것을 문학이라고 굳이 불러야할지?)의 의미를 결코 포착할 수 없다. 게다가 이런 구성물이 현실과 맺는 관계 또한 기존의 문학텍스트와는 분명 다르다. 소설 등의 문학서사가 전통적으로 현실에 대한 미메시스(mimesis)를 기반으로 쓰여지고 그렇게 읽혀왔다면, 오늘날 등장하고 있는 매체들과 언어적 변형들은 현실을 “시물레이트”한다. 이 “시물레이션”에는 분명 미메시스에는 없는 유희적 요소가 존재한다. 새로운 매체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들의 등장이 당장의 사회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도 많으며, 이런 경우 매체 각각의 매개 과정이 주는 독특한 즐거움 때문이라고 밖에는 그 등장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 즐거움을 부르조아 독자가 ‘자세히’ 읽으며 피카로를 먹어치우며 느끼는 새디즘과 반드시 구별해야 할 이유는 없겠지만, 또한 그 변태적 쾌감을 ‘교양’으로 치환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5.

매체는 대상을 매개한다. ‘자세히 읽기’ — 혹은 ‘징후적 읽기’ — 가 언어와 대상 사이의 (고착된) 관계에서 일어나는 ‘재현’을 읽어낸다면 ‘매개’는 대상과 재현, 언어 사이에 다양한 차원, 다양한 형태의 물질·해석적 개입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또 그러한 개입들이 의미망의 형체를 계속 변화시키는 양상을 드러낸다.¹⁶⁾ 이 개입들이 만드는 층위들은 분명 두께를 만들지만 이는 대상과 재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심연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대상과 재현은 사라지고 그와 비슷한 것들만이 촘촘히 남겨져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인터페이스에 더 가까운 형태가 나타난다.¹⁷⁾ 이 인터페이스에서 대상(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재현(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모방하고 재현(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대상(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모방하면서 그 상호모방의 층위들은 겹치고 이어지고 변형되며, 이 피드백 루프 속에서 유기적 언어와 인공적 매체는 의미

16) 아도르노는 문화·사회 현상을 읽고 분석할 때 매개과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증주의에 빠지게 되고 현상과 결과 사이에 마술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하게 될 위험을 경고한다. Adorno and Benjamin (1999), *Complete Correspondence, 1928-1940*. qtd. in Guillory, p. 358.

17) 지틀먼(Lisa Gitelman)은 이런 매개의 흥미로운 예로 1990년 발사된 허블우주망원경에 대한 기사를 든다. 망원경 렌즈의 일부가 잘못 갈렸음이 밝혀졌는데 이로 인해 우주의 이미지가 제대로 관측되지 않았으며, 신문 기사는 이 실수를 보도하면서 “허블 망원경이 안경을 써야한다”는 조크를 했다는 것이다. 망원경 자체가 이미 안경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안경에 안경이라는 메타포는 우주와 관측자 사이에 얼마나 많은 매개가 개입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Lisa Gitelman (2006), *Always Already New* 참조. 미리엄 한슨(Miriam Hansen)은 매체가 수행하는 매개라는 것이 더 이상 예술작품과 기술복제시대의 대중매체라는 구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면서 UN건물 내벽에 걸려있는, 직물 위에 짜낸 피카소의 ‘게르니카’ 복사본을 예로 든다. 이 매개는 후원자 록펠러(Rockefeller)라는 요소도 고려해야 하고 직물이라는 중세적 재료도 고려해야 하며 이 많은 개입들로 인해 재현과 매개, 예술작품과 복사본, 전근대와 기술복제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의 외부와 내부를 끊임없이 뒤집어 입는다. 이 유희적 진동은 반드시 인간성이나 보편이라는 허위적 가치로 수렴될 필요는 없다. 어디로 수렴할지, 어느 방향으로 도착할지 모르는 채 계속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행위인지도 모른다(물론 피카로처럼 방랑하다가 소비 자본에 의해 잡아먹힐 가능성도 매우 크다). 레이 초우가 보여주었듯 글은 그래프의 개입을 요구하고 그래프는 글의 설명을 요구한다. 이들의 상호모방과 경쟁, 피드백 루프는, 언어가 아니지만 언어가 되고자 하는 그 무엇, 글이 아니지만 글처럼 기능하는 그 무엇, 또,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처럼 말하고자 그 무엇인가를 남길 것이다.

참고문헌

- 박선주(2018). 「비교문학연구방법론에 대한 소고: 길고 약하고 두껍게 비교하기」. *비교문화연구* 20: 347-370.
- 아즈마 히로끼(2012). 『게임적 리얼리즘의 탄생』. 현실문화.
- Ahmed, Siraj (2013). “Notes from Babel: Toward a Colonial History of Comparative Literature.” *Critical Inquiry* 39: 296-326.
- Bhattacharya, Baidik (2016). “On Comparatism in the Colony: Archives, Methods, and the Project of Weltliteratur.” *Critical Inquiry* 42: 677-711.
- Best, Stephen and Sharon Marcus (2009). “Surface Reading: An Introduction.” *Representation* 108.1: 1-21.
- Chiang, Ted (2004). *Stories of Your Life and Others*. Pan Macmillan.
- Chow, Rey (2011). “On the Graphic in Postmodern Theoretical Writing.”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57.3/4: 372-379.
- Dimock, Wai Chee. 2006. *Through Other Continents: American Literature across Deep Time*. Princeton: Princeton UP.
- Gang, Josha (2011). “Behaviorism and the Beginning of Close Reading.” *ELH* 78.1: 1-25.
- Garrett, Matthew (2015). “Subterranean Gratification: Reading after the Picaro.” *Critical Inquiry* 42.1: 97-123.
- Geertz, Clifford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New York: Basic Books.
- Gittelman, Lisa (2006). *Always Already New: Media, History, and the Data of Culture*. MA: The MIT Press.
- Guillory, John (2010). “Genesis of the Media Concept.” *Critical Inquiry* 36: 321-362.
- Hansen, Miriam (2004). “Why Media Aesthetics?” *Critical Inquiry* 30: 391-395.
- Haraway, Donna (1991). *Simians, Cyborg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New York: Routledge.
- Latour, Bruno. (2004). “Why Has Critique Run Out of Steam? From Matters of Fact to Matters of Concern.” *Critical Inquiry* 30: 2.

Liu, Lydia H (1995). *Translingual Practice: Literature, National Culture, and Translated Modernity China 1900-1937*. Stanford: Stanford UP.

Liu, Lydia H (2010). *The Freudian Robot: Digital Media and the Future of the Unconscious*. Chicago: Chicago UP.

원고 접수일: 2018년 6월 26일

심사 완료일: 2018년 7월 31일

게재 확정일: 2018년 8월 1일

ABSTRACT

Comparative Literature in the Posthuman Age: How to Read Artificial Language

Park, Seonjoo*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that comparative literature might become relevant in the posthuman age, mainly focusing on the issue of reading. Language has been transforming itself constantly through the interaction with media, thus becoming increasingly artificial and mechanical. Even the most radical linguistic theories have been constituted through the global translation from science and technology. Human beings and machines, literary language and media, science and humanities do not compete; instead, they are deeply implicated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ir constitution. In this context, the core ideas such ‘humanity’, ‘universality’ or ‘literariness’ for comparative literature are being challenged. ‘Close reading’ as a representative methodology does not cope with such a challenge, and to devise a different way to read, we need to establish the genealogy of reading in a Foucauldian sense. That way, the ideological, social and historical limitations of ‘close reading’ can be revealed more clearly. Comparative literature, when reading itself from the outside, might be able to deal with the artificiality of languages and texts, and think of the other — posthuman — forms of human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Inha University

